

# 클래식이 인문학을 만났을 때

광주예술의전당 '11시 음악산책'  
8~11월 공연 하반기 라인업 공개  
시·여행·건축 등 인문학적 성찰  
다음달 27일 아나운서 이상협 무대



광주예술의전당이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을 11월까지 진행한다. 오는 8월 27일 및 전화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상협(왼쪽)과 11월 26일 출연하는 영화음악가 이병우.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매월 마지막 주(화요일 오전 11시)마다 선보이는 '11시 음악산책'은 아침에 펼쳐지는 마티네 콘서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클래식을 접목,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의 깊이를 더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콘서트 가이드로 초청해 관객들에게 해설을 들려준다.

전당이 최근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의 하반기 라인업을 공개해 이목을 끈다. 오는 8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하며 기타리스트, 사진가, 건축가 등이 출연해 인문학적 성찰을 나눌 예정이다.

가장 먼저 8월 27일에는 아나운서 이상협이 "당신에게 가까운 바다가 있나요?"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시인이자 가수, 로드다큐 프리젠티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협은 KBS클래식FM '당신의 밤과 음악' 등에 출연 중이다.

이 씨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음반 '봄, 밤', 'GO TRIP' 등을 발매한 가수이기도 하다. 또한 문예지 '현대문학'의 시 부문으로 등단해 시집 '사람은 모두 울고 난 얼굴', 산문집 '내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줄래' 등을 출간한 다재다능한 예술가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상협이 직접 써 내려간 문장들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만난다. 방송과 시, 책과 여행, 사진 등 다양한 장르들을 '음악'으로 엮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바산 연주에 김남훈, 피아노에 박상현)

9월 24일 이어지는 '빛을 향한 건축 순례'는 건축가 김중진(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의 가이드에 따라 삶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들여다본다. 김교수의 저서 '그림자의 위로'에 등장하는 장소들

과 맞물린 클래식을 감상하며 '건축음악 순례'를 떠난다.

총 네 가지 '빛'을 테마로 떠나는 공연은 '침묵의 빛' (남프랑스 르 토로네 수도원), '예술의 빛' (독일 인젤름브로이 미술관), '생명의 빛' (멕시코 길라드리 주택), '안식의 빛' (스웨덴 우드랜드 묘지)이라는 주제로 영상과 함께 펼쳐진다. 바이올린 연주는 김소연·김지민이, 비올라는 권려린이 맡으며 첼로는 조은강의 선율에 실린다.

사진과 재즈를 접목한 흥미로운 무대도 마련된다. 콘서트 가이드 안웅철이 출연하는 '지금껏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그것. 오는 10월 29일 펼쳐지며 고희안 트리오, 보컬리스트 정란 등이 협연할 계획이다.

사진작가 안웅철은 클래식, 팝을 비롯해 세계적인 재즈아티스트들의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은 인물 중 하나다. 류이치 사카모토를 비롯해 키스 자렛, 브래드 멜다우와 찰리 헤이든, 피아니스트 이루마 등 내로라하는 거장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 작가의 포토 에세이를 중심으로

사진과 재즈에 얽힌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끝으로 11월 26일 진행하는 기타리스트이자 영화음악가 이병우의 '기타, 영화를 만나다'도 이목을 끈다. 핑크스타일 기타리스트 1호로 손꼽히는 이병우는 그동안 6장의 솔로 음반을 비롯해 '왕의 남자', '국제시장' 등 굵직한 30편 영화 OST를 만들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뉴욕 타운홀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라이브 연주회를 마치고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35년간 음악가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 이야기와 솔로 기타 연주곡, 영화음악 등 명곡들을 스트링 세션(이병우 스트링 콰르텟)과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특히 첫 공연을 펼치는 아나운서 이상협은 11월 공연까지 전화차 무대의 진행자까지 맡아줄 예정이다"며 "건축,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관통하는 명사들의 미학적 성찰을 '음악'을 매개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전석 2만원. 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한국음악, 그 뿌리 깊은 소리

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3일 '채수정 소리단' 초청 공연



채수정 소리단이 '손 처울리기'를 시연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채수정 소리단'은 민요, 창곡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왔다.

채수정 소리단이 초청공연 '뿌리 깊은 소리'를 오는 8월 3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 대극장 전야당에서 펼친다. 절에서 재를 올릴 때 활용하는 소리인 법패(梵牌), 판소리 눈대목, 진도씻김굿 등을 만나게 된다.

공연은 '법패'로 막을 올린다. 한국 불교음악의 정수이자 총체이자 범음, 인도 등으로도 불리는 이 소리는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으로 일컬어진다. 일반적으로 장단이 없는 의식음악의 성격을 보이며 무용을 곁들여 표현한다.

이어지는 작품은 판소리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이다. 조조 군의 배가 불타고 군사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서술한 대목이며, 조조가 출항하려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했다. 흥보와 마누라가 함께 툇잡을 하며 박을 가르는 '흥보가' 중 '박타

령'도 울려 퍼진다.

"여보시오 되려님 오늘날 올라가면 어느 시절이나 오라시오 올 날이나 일러주오 마두각하면 오라시오 오두백하면 오라시오."(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부분)

이도령과 춘향이 고별하는 '춘향가' 중 '이별가'도 레퍼토리에 있다. 눈대목 중에서도 인기가 많으며 특정 사설을 끌고 가는 시김새, 후렴 없이 길게 노래하는 특징이 있다.

끝으로 채 씨가 진도 세습무가 출신의 고(故) 채정례 명인으로부터 사사받은 채정례본 '진도씻김굿'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한예종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이자 법패, 진도씻김굿 등을 사사한 명창 채수정 초청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악원은 전통의 계승·보존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초청공연을 펼쳐 보일 것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남성은 제조·건설, 여성은 보건·교육 종사

광주여성가족재단 '5개 자치구 성별 고용동향' ...고용률 격차 증가

남성은 주로 제조·건설·도소매업 등 고소득 산업군에 종사하는 한편 여성은 보건 및 사회·교육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용근로자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았고, 성별 육아시간 차이 등으로 인해 취업자근무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25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광주시, 5개 자치구 성별고용동향'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 등 고착화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별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21개 산업군 중 상위 3개 산업군 종사자 평균 성비율은 남성 43.7%, 여성 51.0%로 조사됐다. 남성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 종사했으며 여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격차 또한 22년 16.3%p에서 지난해 16.6%p로 소폭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남성은 '높은 상용근로자 비율과 낮은 임시근로자 비율'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낮은 상용근로자 비율과 높은 임시근로자 비율' 특징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재단은 취업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광산구(62.9%), 서구(54.8%), 동구(50.2%) 순으로 거주지에 근무지가 위치했으며 전남지역 출생자가 많은 남구(39.2%)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사회 화두인 '초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를 향상 등을 위해 성별고용동향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지리산문학상에 지관순 시인

최치원신인문학상 이형옥 시인



지관순 시인 이형옥 시인

제19회 지리산문학상에 지관순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공타'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

계간 '시산맥' (대표 문정영)은 제19회 지리산문학상에 지관순 시인이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산맥'과 지리산문학회(회장 박철)가 공동 주관하는 지리산문학상은 시상 전년도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제로 운영된다.

이번 19회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시 쓰기의 경험을 오래 한 사람만이 가능한 독창적 상상과 개성적 표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분적 시상들의 연결고리가 단단하여 작품 전체의 완결성과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다.

지관순 시인은 제10회 최치원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아르코창작지원금(발표지원) 수혜를 받았다. 공모 원고는 시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수상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시산맥' 가 홈페이지 '지리산문학' 동인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함양군과 '지리산문학회'가 제정한 지리산문학상은 첫째 정병근 시인으로부터 유종인, 김왕노,

정호승, 최승자, 이경림, 정운천, 조정인 시인 등이 수상했다.

올해 60년을 맞는 지리산문학회는 함양과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동인지 '지리산문학'을 발행해왔다.

한편 제19회 최치원신인문학상은 이형옥 시인의 '생태드레스의 무지개' 등 5편이 선정됐다. 이 시인은 이번 수상으로 계간 '시산맥' 등단자로 인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9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9회 '지리산문학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